



제주 천연기념물 보존의 선봉,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정봉훈 원장

고객홍보처

제주특별자치도. 육지와는 또 다른 제주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이번호 KAPE 누리에서는 그중에서도 체계적인 협동 관리를 통해 재래가축과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있는 축산진흥원의 정봉훈 원장을 만나보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말,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존을 진흥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정봉훈 원장(이하 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1965년 제주도 가축인공수정소로 시작되어 이후 제주도 축산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3년 현재 위치(제주도 축산마을길 13번지) 360ha 면적에 축사 및 초지를 조성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한우 및 제주흑우, 제주마, 재래가축, 청정종돈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흑)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종축 및 수정란 공급, 제주 재래가축의 순수혈통 정립 및 안정적인 보존, 고능력 씨돼지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능가 소득 증대, 말 거점조련센터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7개 가축종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등 3품종의 천연기념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우, 개량돼지, 제주개, 제주재래닭 등 7종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한우 암소 능력검정,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한 고능력 우량한우 생산 보급과 종돈 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돈 생산으로 품종개량을 촉진하는 등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 제주흑돼지는 201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에서 흑돼지 전용 축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흑돼지와 전용 축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 제주흑돼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검은 보물 중 하나로 장구한 세월동안 제주의 선조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토종 제주흑돼지는 근대화 이후 외국 개량돈 도입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제주지역에서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돼지 복원과 보존을 위해 1986년부터 제주도 전역을 수소문하여 성돈 5두(암 4, 수 1)를 수집하고 사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제주흑돼지 특성 분석과 순수 계통번식을 통해 증식에 매진한 결과 현재는 혈통 등록된 제주흑돼지가 300여 마리로 증식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흑돼지 전용 축사는 제주흑돼지 순수 혈통 보호·육성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흑돼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유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종(種) 보존, 동물복지 실현 등을 위한 도내 유일의 톱밥돈사로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축 축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종돈장이 가축전염병에 대해 청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으신지요?

정 축산진흥원 종돈장은 1997년 “청정종돈생산공급기지화”를 위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2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인 청정돈군 유지와 종돈생산 공급을 위해 매해 분기별로 정기적인 종돈장 질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돼지열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 오제스키 등 5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청정돈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종축장 인증을 위해 위축성비염, 유행성페렴 등 13종의 돼지전염병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종돈 및 생산자돈, 검정돈의 방역 관리를

위한 돼지전염병 예방백신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청정돈군을 개량 증식함으로써 제주도내 돼지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사양 관리나 방역 관리는 특별한 관리 방법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적기의 백신접종, 지속적인 질병 검사와 철저한 차단방역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 제주도의 천연기념물인 제주말이 유명하죠. 제주마 멸종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정 제주말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 운송수단 발달로 인한 활용도 저하로 1980년대 중반에 개체수가 1,300여 마리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마 멸종 방지를 위하여 '제주마 혈통정립 및 보존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1985년)'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순수혈통으로 인정된 제주마 64마리(암말 55, 수말 9)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로 지정(1986.2.8.)하여 보호구역(6필지·133ha)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주마 적정 사육두수(150마리) 초과 마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해제 후 공개 경매를 통해 도내 사육 희망자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위하여 태어난 망아지에 개체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고, 아비마, 어미마, 망아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친자확인 후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마 혈통정보를 인터넷(<http://jejuhorse.jeu.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 지난해 말 거점조련센터가 축산진흥원 내에 신설됐습니다. 말 거점조련센터는 어떤 곳인지,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 제주는 전국 최대의 말 사육 및 생산지입니다. 말의 고장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지요.



축산진흥원은 이러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2014년 12월에서 2017년 9월까지 축산진흥원 부지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말 거점조련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시설면적 23,980㎡의 이 말 거점조련센터는 마사2동(48칸), 실외마장, 원형마장(2), 워킹머신(2), 퇴비사, 소독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 거점조련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도 내 말 관련 11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2017. 9.)한 결과, 승용마 조련 전문성 강화 및 승마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 끝으로 축평원과 KAPE누리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신다면?

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KAPE누리 독자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